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상담소 전화자원봉사 백천사 보살들

가정폭력에 멎든 맘 보듬어요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 법당 건물에 들어서려하면 '가정폭력상담소'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라니, 생소하다.

"아직 가정폭력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연구소나 상담소는 서울에만 밀집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양주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라도 들겠다는 의지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7월 13일 전화를 받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로 출근한 황혜영(41) 소장의 말에서 왜 백천사가 이러한 사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해진다. 조금이라도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지역 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여무란져 주기 위해서다. 그 일선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다.

10년 전 우연히 불교 상담 수업을 듣게 된 황 소장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울분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고는 상담 봉사에 뛰어들었다.

황 소장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배춘자(45) 보살 역시 불교상담공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위로로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배보살 자신을 이렇게 뿌듯하게 만들지 못했다든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가정마다 폭력의 이유가 모두 달라 '맞춤 상담'을 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봉사자들은 토로한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해체'라는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은 같다.

앞으로도 그런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 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들에게 꿈이 있다. 상담소의 규모를 키워 자체적으로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 여성들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강좌들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날이 있어도 더 좋은 서비스로 피해 여성들을 돕게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

남양주-김강진 기자



남양주 백천사에서 가정폭력으로 마음을 다쳐 힘든 사람들을 다독이는 전화상담 봉사자의 모습. 사진은 7월 13일 봉사 모습이다.

상담봉사자 부족합니다

백천사에서는 여러 후원 물품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늘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상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절실하다. 가정폭력상담소 황혜영 소장은

"현재 백천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해도 상담봉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없어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뜻있는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031)577-3545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훈장 노릇 생각만큼 쉽지 않네”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초등학교서 서예교실

"어르신들,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평소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서예 가르쳐 주시고 가운도 하나씩 써 주시면 돼요."

7월 12일 서울 서정초등학교 과학실, 앞문과 뒷문에는 '서예 훈장교실'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1교시가 시작되기까지는 30분 이상 남았지만 과학실 안에는 이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 어르신 20명이 도착해 복지관 직원으로부터 마지막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서정초등학교를 찾은 어르신들은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서예훈장으로 집중 훈련시킨 '문방사우(회장 권진기)' 회원들이다. '문방사우'는 앞으로 초등학교 특별시간을 이용해 '서예훈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아카데미 교육이다. 직업교육까지 받은 어르신들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훈련을 거듭했음에도 실선으로 아이들을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으니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드디어 1교시 시작장이 울리고 3학년 4반 40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어르신 1명당 학생 2명이 자리에 맞춰 앉아 인사를 나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가 낯선 아이들을 시선을 어디에 뒀어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서예 수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어르신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학교에서 딱 한 번 밖에 해 본 적 없다는 서예시간. 아이들은 훈장님들이 화선지에 붓으로 써 내린 글씨를 뉘를 놓고 바라본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이제 붓을 들어 담당 훈장님에게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집중한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서예를 한 정홍(10)이는 얼마나 글씨에 공을 들였는지 팔이 아파 연신 두드려댄다.

"힘주면 글씨가 잘 안된다. 그리고 'ㅇ'은 한 번에 쓰러하지 말고 붓을 조금씩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그리면 쉽지." 정홍이의 손을 꼭 잡은 구민욱(70) 할아버지 덕분인지 정홍이의 실력이 조금씩 높아가고 얼굴에는 웃음이 번진다.

이날 행사는 서예 교육 뿐만 아니라 '가훈써주기' 행사도 함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진행 중인 '서예 훈장교실'. 7월 12일에는 서울 서정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의 솜씨가 빛났다.

게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어르신들이 직접 붓글씨로 가운들을 들고 있다. 강희(10)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방에다 붙여둘 것"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은희 과장은 "이번 사업은 1·3세대 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news.com

재능있는 불자 축구선수, 후원자 찾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불자 축구선수가 화업을 지속할 학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당시 국가 유소년대표 발탁된 한정연(등대고 3학년·사진군)은 올해 들어 서도 '제14회 금석배전국축구대회'와 '전국체전예선 및 서울시장기대회'에서 최다득점상을 두 번이나 거머쥔 축구인재다. 그러나 작은 공장 운전수로 일하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매 시합 때마다 1백만원씩 내야하는 축구부의 현실을 감당하기 버겁다.

더구나 부모님은 IMF 부도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극도로 집안형편이 어려운 상태.

정연군은 합숙비를 내지 못해 의정부 집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새벽부터 홀로 연습에 전념한다. 모두들 점심은 먹는 시간에도 합숙소에서 함께 먹지 못하고 빵으로 요기하며 축구를 한다. 그러나 정연군은 "운동장을 뛰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며 환히 웃었다. 후원문의: 016-754-7495

이은비 기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 (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면 유망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인정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

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만까지 있어수맥감정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몇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부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 것이다. 수맥 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부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 것이다. 수맥 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부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 것이다.

엘로드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엘로드가 오작동을 하므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가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수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수맥파 차단 카드

아침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가족 건강위해 인기



(크기 8.5cm x 5.5cm)

멜토 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등판을 깬다. 병상 밑에서 발생하는 수맥파로 인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맥파는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생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나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질환과 중풍, 치매, 만성피로, 수면부족, 오심, 집중력 저하,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수맥파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리를 못하고 짜증을 낸다. 수맥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발표가 늘고 따르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맥파 차단카드 설치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한 멜토에너지는 모든 유험파를 중화시키는 것으로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를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 20층 APT나 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차단카드를 6개월에 한번씩 햇빛에 3시간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대단히 가벼워진다. 가격7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부처자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진 영험의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연 영험종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주 수진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지갑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주 수진연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을 꽂는 창 3개와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복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 가죽으로 최고급 지갑이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복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 안배

민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도직전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을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벌고, 되는 날이 없던 가정이 잘되는 등 윤행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보화와 보물을 모은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보화가 쏟아진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성용복지갑 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이다. ■문의전화:(02)741-4488

053-12-102911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